



## 눈먼 돈

매출액이 3억원 이상의 제조업체들이 쓴 연구개발비가 겨우 0.1%인데 비해 기부접대비는 그 11배나 된다는 통계도 있다. 한올타리 안에 월 10만원 이하의 저임근로자가 있는데……

기업 접대비는 흔히 「윤활유」에 비유된다. 접대비를 쓸 만큼 써야 서류가 부드럽게 돌아가고 일의 매듭이 쉽게 풀린다는 데에서 생긴 비유이다. 사실상 몇해 전까지만 해도 관청에 가서 서류 한 장 땄래도 「급행료」라는 것이 있어야 했고, 좀 무더기 큰 인·허가 사무에는 저녁의 술자리라도 한판 벌여야 일이 제대로 돌아가곤 했다.

기업의 접대비는 세무당국에서도 공공연하게 인정받고 있다. 자본금(50억원까지)의 2% 혹은 연간 외형의 0.1%까지를 손비(損費)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. 그러나 접대비를 이 한도액만 쓰는 기업은 거의 없다.

언젠가 대한상의(大韓商議)가 7백50개 외부회계 감사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88%가 접대비를 한도액 이상으로 지출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. 기업측의 얘기를 들어 보면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액이 너무

낮기 때문에 접대비가 변칙지출(變則支出)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. 매출액 3억원 이상의 제조업체들이 쓴 연구개발비가 겨우 0.1%인데 비해 기부접대비는 그 11배나 된다는 통계도 있었다. 한 올타리 안에 월 10만원 이하의 저임(低賃)근로자가 있는데 한쪽에선 머리당 20만~30만원짜리 술자리를 벌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덕적인 정당성을 찾기가 어렵다.

정부가 내년부터는 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을 더 줄인다는 소식이다. 업무추진도 좋지만 세상이 맑아지자면 구석 구석에 숨어 있는 「눈먼 돈」이 없어져야 한다.

우리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는 사치성 향락업소가 대부분 이들 「눈먼 돈」을 젖줄로 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「접대비」란 명목으로 뿌려지는 돈구멍부터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.

〈京鄉新聞, 85년12월20일 「餘滴」에서〉

## 국민건강생활지침

1. 식사전에는 손을 씻고 식사후에는 이를 닦으시다.
2. 음식은 제 때에 싱겁게 골고루 먹으시다.
3. 행주와 도마는 삶거나 햇볕에 말려서 쓰시다.
4. 쓰레기통은 뚜껑을 덮고 주위를 깨끗이 합시다.
5. 예방접종과 건강진단은 때 맞추어 받으시다.
6. 지나친 담배와 술을 삼갑시다.
7. 알맞게 운동하고 즐겁게 생활합시다.